

2011.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1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1.8.31	대전MBC 대회의실	8/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여운철, 김재영,신현대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장래균 기획심의 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8	-	1	19	-	1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4	15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건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세잎클로버>는 세련되지 않은 풋풋한 느낌이 좋다. 그러나 '여름특집'편은 서울 예능프로 느낌이 들어 다소 식상해 보였다. (유치벽 위원)	지역의 훈훈한 소통, 로컬리티를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대학등록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학생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안타까웠다.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라 여겨진다 (김경옥 위원)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 제작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대학등록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지역 국회의원 인터뷰는 알맹이가 없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 찬성하는 편만 인터뷰한 인상이 든다. (방기봉 위원)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주의조치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낙농가 우유대란'아이템은 서울과 지역, 같은 날 방송내용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웠다. (방기봉 위원)	발표 당일 서울과 지방의 시차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혼란가능성을 없애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시사분석>은 진행이 점점 안정화되는 인상이다. 그러나 주제에 맞는 정확한 패널선정이 필요해 보인다. 시청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다음 예고 후 앙케이트를 받으면 좋겠다. (김진국 위원)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해당 아이템의 대표성을 높여 가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반값 등록금'보도는 구조적인 문제도 다뤄야지 반값에 초점을 맞추면 사회가 분열양상을 떨 수 있다. (김진국 위원)	종합적인 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세잎클로버>는 여자 진행자 투입 후 활력이 느껴져 좋고 참여계층이 다양화 돼 칭찬해 주고 싶다. (안정선 위원)	칭찬해 감사하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뉴스데스크의 '백범 김구'기획보도는 처음엔 우려했으나 새로운 분석, 접근방법으로 보기 좋았다. (안정선 위원)	감사하고 항상 신선한 뉴스를 만들어 가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라디오 <시대공감>은 본격 시사를 지향했지만 아이템이 연성화 되고 정보 프로같은 인상이다. 진행은 안정적이지만 힘이 딸린다는 느낌이 든다. (안정선 위원)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진행방법을 개선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보도	정치권의 선동적, 자극적 용어를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는 용어 순화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김경숙 위원)	주의하겠다.	보도수용
교양	<시사플러스> '대학등록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문제를 다뤄 고맙다. 서울대 사례는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지방국립대를 비교했으면 좋았겠다. (김경숙위원)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 담당자에게 균형감각을 갖도록 조치하겠다.	편성수용
보도	<시사분석> '위기의 고려인삼, 활로는 어디에?' '에서는 인삼 연근이 오래될 수록 효과있나? 연근 표기 폐지시 효과는? 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좋았겠다. (김영광 위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제를 압축해 2차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보도수용
교양	<시사플러스>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심도있으나 공주시장, 국토해양부 관계자 인터뷰가 없어 아쉬웠다. (김영광 위원)	사실상 시와 국토해양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아침이 좋다>는 앓아 진행하니 안정감이 든다. 세트배경은 어둡고 산만한 인상이다. '뉴스 따라잡기'는 월 또는 금요일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김영광 위원)	뉴스센터가 HD공사중이라 임시 세트다. '뉴스 따라잡기' 이동은 제작진과 상의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숨막히는 추격전' 학생 인터뷰시 즐거운 듯한 표현은 눈에 거슬렀다. (김영광 위원)	주의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기타	에코 캠페인의 대표 인터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으면 좋겠다. (김영광 위원)	'에코 레이크' 캠페인은 8월 15일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송출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인 출마평에 오르는 인사가 출연할 경우 배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지역대학의 취업률이 심각하다. 지역대학과 향토기업을 연결하는 분석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안정선 위원)	기획뉴스를 준비하고 있다.	보도수용
보도	<시사분석> 시간대 이동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않나? (김진국 위원)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보도 시사프로는 주중 목-금요일이 좋고, 방영시간대도 밤 10-11시간대를 선호한다. 개편때 검토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대전시에서 인도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좁은 도로를 파헤쳐 공사하는 것이 맞는가? 보도했으면 한다. (김영광 위원)	취재를 통해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을 파헤치겠다.	보도 의견참고